

# 신앙의 참견



기독교 공감 로맨스 코미디

2022.06.16 (목) 첫공개!

미래교육 콘텐츠개발원 제작 · 지원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교회오빠  
이요셉

교회누비  
김수림



교육국협력기관

미래교육 콘텐츠개발원

STUDIO H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와 교회의 상황이 절망적인 때에, 감리회 청년들을 위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과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가는 다음세대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롭게, 가깝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안에서 언제든지 영상을 시청하는 청년들에게 웹드라마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청년들의 트렌드에 맞추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서를 담은 웹드라마를 제작한다면, 그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감리교단이 최초로 청년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을 제작하여 드디어 감리교회와 청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00% 기독 청년들의 손으로 제작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듭니다. 이번 웹드라마를 시작으로 계속 변해가는 MZ 세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복음의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도전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음세대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본문과 설교 가이드 및 나눔을 위한 질문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배포하오니, 청년들의 부흥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놉시스



종갓집 딸래미 김소금과 그녀를 좋아하는 그녀의 남사친 목사님 아들 박광(일명 빛과 소금) 김소금은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교회를 가면 갖고 싶던 아이패드를 준다는 박광의 말에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성경 골든벨을 우승해야만 주는 것이었는데...! 배신감을 느낀 김소금은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 그 순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하나의 빛 덩어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너무 잘생긴 교회 오빠 이요셉.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 김소금은 첫눈에 반하고 만다. 그런 김소금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 박광. 김소금을 이요셉에게 뺏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요셉의 이상형은 성경 골든벨을 1등하는 여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

오히려 좋은 김소금은 그 뒤로 계속 교회에 출석하며 이요셉과 친분을 쌓고, 이요셉, 박광과 함께 골든벨 준비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요셉은 사실 성경 골든벨 우승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골든벨까지 남은 시간은 6주! 과연 김소금은 성경 골든벨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소금은 박광이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치 챌 수 있을까? 성경 골든벨을 둘러싼 세 명의 우당탕탕 교회 라이프!

## 등 장 인 물

박 광

21세



건 민

염광교회 목사님 아들. 김소금을 7년째 짝사랑 중이다. 툴툴거리면서도 은근히 할 거 다 해주는 츤데레. 교회 밖에서는 입도 다소 거칠고 툭툭대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른들께 친절하고 신실한 목사님 아들이 된다. 김소금을 좋아하지만 내놓고 티낼 줄 몰라서 아닌 척 챙겨주는 것 밖에 못했다.

김소금

2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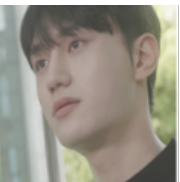


박예진

종갓집 딸. 박광과 7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금방 친해지는 사교왕. 어디서 미움 받을 구석 하나 없이 긍정적이고 밝다. 하지만 너무 솔직한 탓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쓴 소리여도 참지 않고, 호기심 많아 알고 싶은 건 꼭 물어봐야 하는 편이다. 생각보다 금사빠다.

이요셉

21세



서정욱

잘생기고 훈훈한 외모를 가진 교회오빠. 김소금 버금가는 친화력 좋은 사교왕. 앞과 뒤과 조금 다른 인물이다.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아주 즐기는 인물. 허세와 가오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묻어져 나올 때가 있는데,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다정하고 친절하며 주위 사람을 잘 챙겨주는 편이다.